

고난 주간 월요일 아침

본문 - 매일성경 마가복음 14장 32-42절

#1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36절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앙은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미신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땀과 피를 흘리시며 신앙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34절)

그런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고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37-38절)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3

4월은 계절상 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 폭풍이 불어와서 비가 내립니다. 기상이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 오늘 아침, 현재 33만 7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4

'겔세마네'는 올리브 동산입니다. 그곳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습니다.

겔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늘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모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